〔보 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24, No. 7 (2000) p.964~975

한국 성인남녀의 의복 선호색

김 영 인 · 문 영 애* · 한 소 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전공, *부천대학 디자인계열 패션디자인전공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Color Preference for Clothing of Korean Adults

Kim YoungIn · Moon YoungAe* · Hahn SoWon**

Major of Human Environment and Design, Yonsei University
*Major of Fashion Design, Bucheon Colleg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1999. 10. 11 접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color preference for clothing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and to provide the useful data for the fashion color planning.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eferences in hue and tone are different mainly by season. The most preferred colors in clothing are YR, B and Y. Y is preferred in spring, B and W in summer, YR in fall, Gy and Black in winter. The most preferred tones in clothing are pale tone in spring and summer, dark tone in fall and winter.

The color preference for casual wear is more varied than the color preference for formal wear. The tones of low saturation are preferred for formal wear and the tones of high saturation are preferred for casual wear.

Key words: Color Preference, Clothing Color, Seasonal Color Preference; 색채선호, 의복색채, 계절 선호색

I. 서 론

세계적인 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산업발전에 따른 제품의 다양화가 가속됨에 따라 이전보다 세분화된 소비자의 감성적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의 하나인 색채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색채는 디자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움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1].

특히 의류패션분야는 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고 유행의 변화가 타 분야에 비하여 빠르다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므로 매 시즌 유행색이 예측되며 색채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행 예측색은 패션 관련분야의 상품기획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여 구매하는 의복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복에서의 색채기획시에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색채선호에 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2].

색채에 대한 선호는 개인의 성격, 연령, 성별, 개성, 심미안 등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크게는 개인이 속한 문화와 자연환경의 영향에 의해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동일인에 있어서도 색 자체에 대한 기호와 특정물에 대한 기호색은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색채 선호에 대한 조사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조사도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분류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동안 이루어진 색채선호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또한 대부분 언어에 의한 색상계열 구분이나 기본적인 원색의 색샘플에 대하여 선호를 파악하여 기본적인 색 선호만 조사하였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색상과 색조의 변화에 따른 선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류분야의 색선호 조사에 타당한 색샘플을 사용한 색채도구를 사용하여 국내 성인 남녀의 연령, 계절, 복종에 따른 의복 색채 선호도를 조사하므로써 의류에 대한 구체적인 색채선호 경향을 파악하고, 색채기획시 활용할 수 있는 세분화된 색채선호 정보를 구축하고자 한다.

Ⅱ. 의복색채의 선호

색채선호는 사람들의 습관, 시대유행 등 사회적, 관습적인 요인과 선호대상, 사물의 기능과 관련을 가진다. 색채는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과 연관된 선호에 의해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상징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색채선호도는 상징적 의미, 경험, 유행이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3].

색채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표준화된 조사방법과 도구가 개발되지 못하여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주로 인종, 연령 등 개인적 특질과 관련되어 선호도를 규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체적으로 모든 인종에 있어서 어린아이 시절의 색선호 순서는 빨강, 파랑, 초록, 자주, 주황, 노랑이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파랑, 빨강, 초록, 보라, 주황, 노랑의 순으로 선호한다고 한다[4]. 또한, 색채의 온난감이나 명암, 선명도의 특성과 관련하여서 난색은 행복하게, 자유롭게, 발랄하게 보이며, 한색은 온화하게, 경험이 풍부하게, 성숙하게 보인다. 명색조는 순수하게, 젊게, 천진난만하게 보이며, 암색조는 나이가 들게, 부드럽게, 원숙하게 보인다. 선명한 채도는 젊고 발랄하게 보이며, 반면에 탁한 채도와 무채색은 성숙된 경험을 지닌 세련됨, 장수, 평온함을 불러일으킨다.

계절은 색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Goldstein에 의하면 색채는 파랑의 추운 겨울에서부터 파랑띤 녹색과 녹색의 새 싹트는 봄, 그리고 녹색, 연두색, 노랑, 노랑띤 주황색의 한창 진행중인 여름, 그리고 주황색, 빨강띤 주황색, 빨강, 자주색의 성숙된 가을을 지나서, 다시 보라색, 남색, 파랑의 활동이 정지된 겨울로 되돌아온다고 했다. 또한 엷은 명색조는 봄과 초여름의 신선함을, 선명한 중간명도는 늦여름의 성숙을, 탁한 암색조는 가을과 겨울의 휴식을 나타내는데, 패션은 그 색채들을 의복으로 변형시켜 표현하므로 봄의 패션은 종종 파스텔 색조이며 여름의 색들은 생동감 있고 행복하며 가을의 패션들은 어둡고 선명하다고 한다[5].

선호색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도 대부분 연령, 계절적 선호차이를 규명하였으며 그중 의복과 관련된 연구를 아래에 요약하였다.

정삼호의 연구에서 20대는 연한분홍, 30, 40대는 초록, 50대는 하늘색, 밝은 보라색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스커트 색으로는 감청색을 가장 선호하였다[6]. 이선재의 연구에서 여대생은 한색계통과 동색배색을 선호하는 반면 성인 여성은 난색과 보색배색을 선호하여 연령에 따라 한색계와 난색계의 색채선호가 다르게 나타났다[7]. 이기영의 여자중학생의 의복색 선호에 관한 연구에서는 의복색에 관계없이 가장 선호하는 색상은 보라, 흰색, 노랑, 초록, 검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선호 의복색으로 봄, 여름의 경우 노랑, 흰색을, 가을, 겨울의 경우에는 보라, 검정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채색은 계절과 관계없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 의복색이, 상의의 경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하의의 경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격, 피부색, 신체치수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은 선호의복 색상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은영자는 대구시내를 중심으로 20대 남녀의 의복색상 선호를 연구한 결과, 20대는 파스텔, 빨강계, 파랑계, 검정 순으로 난색 계통을 더 선호하고 있었으며, 혐오색으로는 옅은 자주, 카키, 빨강계의 순으로 나타나 어둡고 칙칙한 색을 싫어하며 기본적인 원색보다는 파스텔계나 베이지계와 같은 중간색과 무채색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의복의 색상 선택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 계절을 상징하고 연상케 하는 계절적인 색상과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기호색 위주로 의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상과 같이 의복의 색채선호에 있어서 연령과 계절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기본 원색 중심의 단순한 조사도구 또는 색채어만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보다 세분화된 색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면 의복의 유형에 따라서도 구체적인 색 선호차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면접과 설문지를 통한 조사 연구방법에 의해 실행되었다. 1, 2차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지와 색상 및 색조로 구성된 색채선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서울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50대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1996년 7~8월에 총 21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1950부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12부가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일본 색채연구소의 색종이로 제작하였다. 의복 색상 선호에 대한 측정은 유채색 25색(분홍, 로즈, 빨강, 주황, 베이지, 갈색, 노랑, 골드, 연두, 리프 그린, 올리브, 올리브 그린, 연한 녹색, 녹색, 터쿠아즈, 청록, 하늘색, 파랑, 감색, 라벤다, 남보라, 라일락, 보라, 자주, 와인 레드)과 무채색 5색(흰색, 밝은 회색, 회색, 어두운 회색, 검정)으로 구성된 색상표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30색 중에서 계절별, 의복품목별(정장, 캐주얼)로 선호하는 색상의 번호를 1, 2, 3순위로 골라서 빈칸에 적도록 하는 선택강요형으로 이루어졌다. 의복 색조 선호에 대한 측정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6색상의 9개 색조(pale, light grayish, grayish, light, dull, dark, bright, deep, vivid)를 구성하는 60개의 색표로 구성되었다(vivid만 12개의 색표가 사용됨). 이중에서 계절별, 의복품목별(정장, 캐주얼)로 선호하는 색조의 번호를 1, 2, 3, 4순위 순으로 적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의 경제수준과 의복구입비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계절별로 선호하는 색상(봄), 색조(봄과 가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10]. 본 연구에서는 연령, 계절, 복종에 따른 색채선호를 세분화시켜 구체적인 색선호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빈도분석에 의해 분석되었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로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30색상에 대한 계절 및 복종별 전체선호도

조사에 사용된 유채색 25색과 무채색 5색의 전체 30색에 대한 성인남녀의 계절 및 복종에 따른 의복색채 선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선호된 색은 검정(10.5%)과 베이지(9.45%), 흰색(7.5%), 갈색(7.45%), 감색(6.8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계절과 복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봄 정장은 베이지, 캐쥬얼은 노랑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여름에는 흰색의 선호도가 두 복종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을에는 복종의 차이 없이 갈색이 가장 선호되었고, 겨울에는 검정이 가장 선호되었다. 이와 같이 30색에 있어서는 복종보다 계절에 따른 선호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계절에 따라 정장과 캐쥬얼 두 복종이 유사한 선호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캐쥬얼보다는 정장의 경우 특히 검정, 흰색 등의 무채색과 베이지, 갈색 등 몇 색에 선호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색에 대한 선호를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유채색 25색을 R, YR, Y, GY, G, BG, B, PB, P RP의 먼셀 10색상 체계와 W, Gy, Bk의 무채색 3색으로 분류하

여 분석하는 것이 더 명확한 선호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의 세부적인 연령 및 복종, 계절별 의복색채 선호는 13색(유채색 10색상+무채색 3색)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의복색채선호

1) 연령에 따른 의복색채선호

연령에 따른 색상선호도를 고찰한 결과, 여성은 YR을 제외한 유채색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무채색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호도는 낮았다. 한편 남성은 연령에 따라 색상선호도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색조선호도를 고찰한 결과, 여성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p과 dk에 대한 선호는 낮아진 반면, dl과 dp과 같이 중간정도 명도와 채도를 가진 짙고 부드러운 색조에 대한 선호는 높아졌다. 남성은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p, lt와 같은 밝고

〈표 1〉 성인남녀의 계절 및 복종 별 30색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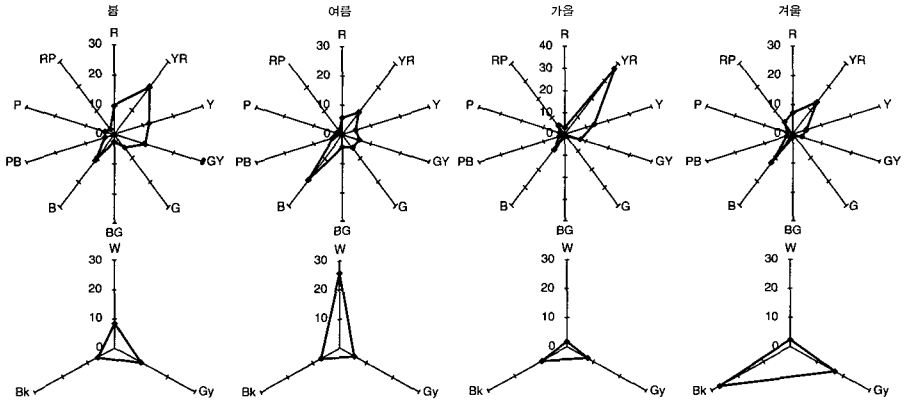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체
색상 \ 복종		정장	캐쥬얼	정장	캐쥬얼	정장	캐쥬얼	정장	캐쥬얼	
R	분홍	3.0	4.4	0.8	2.7	0.3	0.7	0.2	0.7	1.7
	로즈	1.2	2.1	0.3	1.4	0.3	0.9	0.2	0.8	0.95
	빨강	0.6	2.7	0.4	2.8	0.6	2.4	1.8	6.4	1.35
YR	주황	1.5	4.2	0.5	3.8	0.8	2.4	0.2	1.5	1.95
	베이지	**18.7**	**7.0**	9.3	4.8	**14.9**	**11.2**	2.3	3.5	**9.45**
	갈색	2.4	1.9	0.7	1.4	**18.9**	**13.7**	8.4	**9.1**	**7.45**
Y	노랑	3.7	**8.7**	0.9	4.5	0.4	1.2	0.1	1.1	2.7
	골드	2.7	2.5	0.8	1.6	6.1	5.8	0.7	2.9	3.05
	올리브	3.1	6.6	1.7	4.5	0.5	1.1	0.2	0.4	3.35
GY	올리브그린	3.0	3.5	1.2	2.5	1.0	2.3	0.3	0.7	2.9
	리프그린	2.5	2.3	1.1	1.6	6.2	6.3	1.9	3.5	3.5
	연두	2.4	2.2	1.0	2.0	3.8	5.2	1.9	3.4	2.3
G	연한 녹색	3.2	4.4	3.7	3.8	0.4	1.0	0.1	0.4	2.25
	녹색	1.1	3.2	1.5	3.3	0.4	1.4	0.1	0.5	1.5
BG	터쿼이즈	0.7	2.1	1.7	2.5	0.3	1.0	0.1	0.4	1.2
	청록	0.6	2.1	1.9	2.5	0.7	1.7	0.4	1.9	1.55
B	하늘색	3.9	5.0	**10.2**	6.5	1.3	2.8	0.3	1.2	4.1
	파랑	1.5	5.1	4.8	**8.4**	0.9	3.0	1.0	2.6	3.6
	감색	6.2	2.4	4.0	2.1	7.8	4.7	**15.0**	8.8	**6.89**
PB	라벤다	1.9	2.5	1.9	2.7	0.7	1.7	0.3	0.9	1.65
	남보라	0.4	1.0	0.5	1.0	0.8	1.7	0.5	2.1	1.1
P	라일락	1.4	2.0	0.5	1.6	0.3	1.2	0.2	0.6	1.05
	보라	0.2	0.6	0.2	0.6	0.6	1.3	0.5	1.8	0.8
RP	자주	0.4	1.1	0.2	1.1	0.6	1.9	0.7	2.0	1.05
	와인레드	0.6	1.7	0.3	1.0	1.9	4.2	2.6	5.0	2.25
W	흰색	6.0	6.3	**20.2**	**17.3**	1.0	2.1	1.4	2.8	7.5
Gy	밝은 회색	**7.3**	2.0	11.7	2.0	2.6	1.7	1.9	1.9	4.15
	회색	4.6	1.6	3.9	1.4	6.0	3.0	6.2	4.9	4.2
	어두운 회색	3.0	0.7	1.2	0.6	5.8	1.8	14.7	6.9	4.6
Bk	검정	6.3	3.2	6.8	2.9	8.8	5.3	**30.7**	**16.1**	**10.5**

연한 색조와 b, v와 같은 선명한 색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반면, g, dl, dk, dp과 같이 짙고 부드러운 색조에 대한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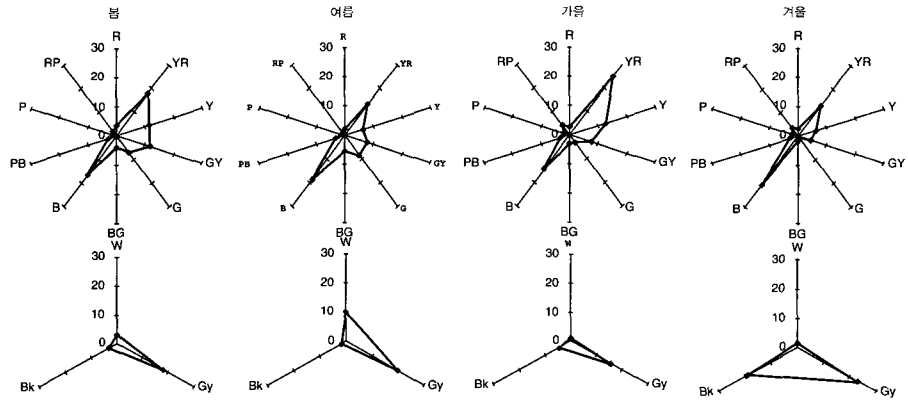
2) 성별에 따른 계절별 의복선호색상

성별에 따른 의복선호색상을 살펴본 결과, 여성은 YR(20.0%), B(12.6%), Y(8.9%)의 순으로 선호하였고, 무채색은 Bk(12.5%), Gy(10.2%), W(9.6%)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남성은 B(17.5%), YR(17.0%), Y(9.2%)의 순으로 선호하였고, 무채색은 Gy(19.1%)를 선호하였다. 즉 남녀 모두 YR, B, Y와 Gy계열의 의복색상을 가장 선호하였다. 각 색상계열의 평균치의 차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색상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은 RP~R~YR에 이르는 색상계열과 W, Bk을 더 선호하였고 남성은 GY~G~BG~B에 이르는 색상계열과 Gy를 더 선호하여, 한색계열은 남성적, 난색계열은 여성적이라는 이미지가 의복색상선호에도 반영됨을 알 수 있다.

계절별 의복색상선호도를 고찰한 결과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봄에는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YR, Y, GY와 B 색상의 의복을 선호하였고, 남성의 경우 Gy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름에는 봄에 비해 YR, Y, GY색상 의복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한 반면, 한색계통인 B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은 여름에 W 색상의 의복을 매우 선호하였지만, 남성은 W보다는 Gy를 더 선호하였다. 가을에는 YR 색상 의복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겨울에는 YR, B를 제외한 색상계열은 선호



[그림 1] 여성의 계절별 색상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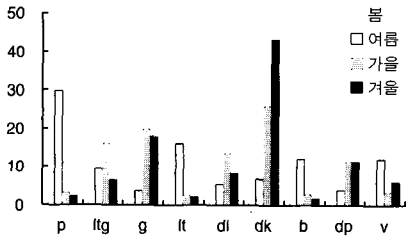
[그림 2] 남성의 계절별 색상선호도(%)

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Gy와 Bk과 같은 무채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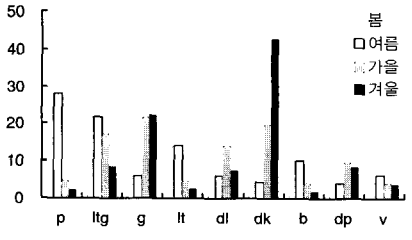
3) 성별에 따른 계절별 의복선호색조

성별에 따른 계절별 의복선호색조를 고찰한 결과, 여성이 선호하는 의복의 색조는 dk(20.4%), p(17.4%), ltg(11.4%), g(11.4%)의 순으로 채도가 낮은 탁한 색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6.8%), v(6.9%)와 같이 채도가 높은 선명한 색조는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남성은 dk(18.9%), ltg(17.3%), g(15.1%), p(14.1%)의 순으로 의복색조를 선호하였고, v(4.6%), b(5.7%)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나,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채도가 낮은 탁한 색조를 선호하는 반면, 채도가 높은 선명한 색조를 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색조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의 p, lt, 명도가 낮고 중간정도 채도의 짙은 색조인 dk, dp, 채도가 높은 선명한 b, v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의복색조로 선호되었다. 중간정도 명도로 채도가 낮은 ltg, g, dl은 남성에게 더 선호되었다.

계절에 따른 의복선호색조는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의 두 집단으로 나뉘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3] 여성의 계절별 색조선호도(%)



[그림 4] 남성의 계절별 색조선호도(%)

봄과 여름의 경우 여성은 p, lt, ltg와 같은 중명도 이상, 저채도의 색조와 b, v와 같은 중명도 이상, 고채도의 색조를 동시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색조선호도는 p, ltg, lt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중명도 이상, 저채도의 밝고 연한 색조는 남녀모두 선호하는 반면, b, v와 같이 밝고 선명한 색조는 여성이 선호하는 색조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을과 겨울의 경우, 여성은 dk, g와 같은 저명도, 저채도의 어두운 색조와 dl, dp과 같은 중명도 중채도의 짙으면서 부드러운 색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dk, g와 같은 어두운 색조를 선호하였다. 또한, 가을에는 ltg, dl과 같이 중명도의 부드러운 색조를 선호하였고, 겨울에는 dk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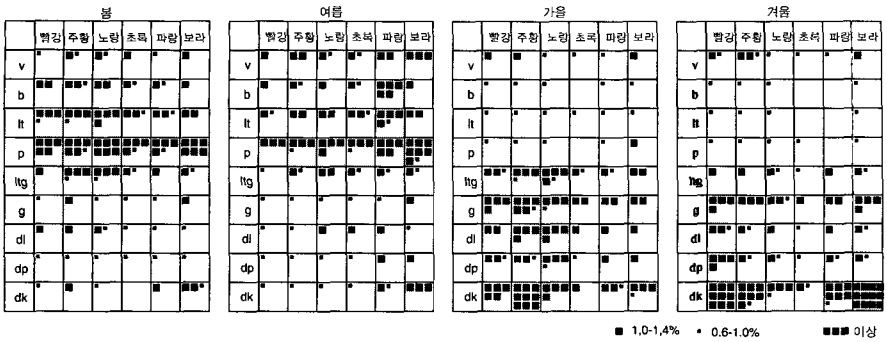
4) 성별에 따른 색상별 색조선호

색상별로 색조를 분석한 결과, [그림 5], [그림 6]과 같이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로 나뉘어 유사한 선호경향을 보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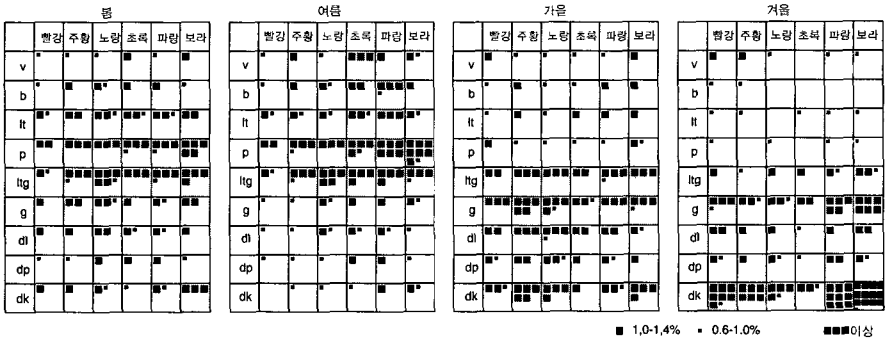
빨강에 대한 의복색조선호도를 고찰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어두운 dk, g 색조를 가장 선호하였고, 여성은 p을 선호하였다. 여성은 봄/여름에는 밝고 연한 빨강을 선호하고 가을/겨울에는 어두운 빨강을 선호하므로, 빨강은 계절에 따라 색조가 구분되어 선호됨을 알 수 있다. 남성은 봄/여름 의복으로는 빨강을 낮게 선호하는 반면, 가을/겨울에는 탁한 빨강을 선호하였으며 특히 겨울에는 어둡고 짙은 빨강에 대해 선호도가 매우 편중되었다.

주황에 대한 의복색조선호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dk, ltg, g 색조를 선호하였다. 남녀 모두 봄/여름에는 밝고 연한 주황색 의복을 선호하고, 가을/겨울에는 어둡고 탁한 주황색 의복을 선호하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은 데 반해 계절에 따라 색조가 뚜렷이 구분되어 선호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남녀 모두 가을에 어둡고 탁한 주황색 의복과 짙고 부드러운 주황색 의복을 높게 선호하였다.

빨강과 주황의 경우 dk 색조가 가장 선호되었던 반면, 노랑은 lt 색조인 베이지색이 가장 선호되었다. 가을에 노랑 의복을 높게 선호하였고, ltg, g, dp, dk 등과 같이 어두운 색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그림 5] 여성의 색상별 색조선호



[그림 6] 남성의 색상별 색조선호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베이지색에 해당되는 ltg 색조가 봄, 여름, 가을에 지속적으로 선호되었다.

조사된 6개 색상계열 중, 초록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v, b, dp, dk와 같이 채도가 높은 색조의 초록보다는 p, ltg, lt과 같이 채도가 낮으며 밝고 연한 초록이 선호되었다. 남녀 모두 가을/겨울보다는 봄/여름에 초록색 의복을 선호하였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초록색 의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여름에 v한 초록을 선호하였다.

파랑은 dk 색조가 가장 선호되었는데, 여성은 dk, p 색조를 선호하였고, 남성은 dk, ltg, g, p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파랑은 여름에 가장 선호되었고, 가을에는 적게 선호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밝고 탁한 파랑은 남성이 선호하는 색상으로 나타났다.

다른 색상은 가을/겨울에 dk색조를 선호한 반면, 보라는 여름 남성복을 제외하고는 dk에 편중된 선호도를 보였다. dk한 보라 다음으로 여성은 p한 보라를 선호하였고, 남성은 p, ltg, g한 보라를 선호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보라색을 더 선호하였고, 밝고 탁한 보라를 남성이 더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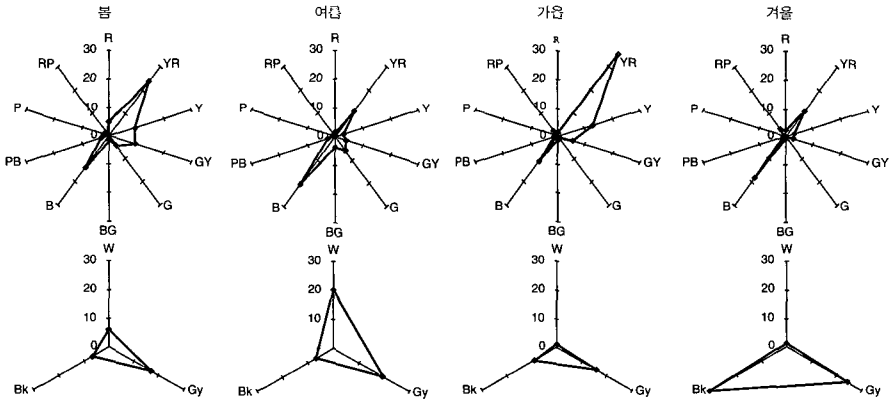
3. 복종에 따른 의복색채선호

1) 복종에 따른 계절별 의복선호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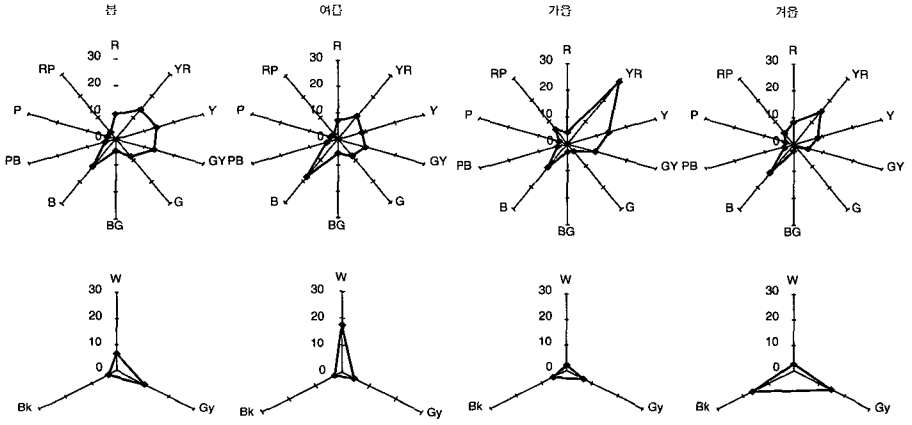
의복품목을 정장과 캐쥬얼로 나누어 계절별 의복선호색상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장으로 선호하는 의복색상은 YR(20.4%), B(15.7%), Y(6.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색상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무채색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Gy(19.0%)가 가장 높게 선호되었으며, Bk(13.3%), W(7.1%)의 순으로 선

호되었다. 캐쥬얼의 경우, YR(17%), B(13.7%), Y(11.2%)의 순으로 의복색상을 선호하였고, 무채색 중 Gy(9%)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가장 선호하는 3가지 색상계열은 정장과 캐쥬얼이 일치하였으나, 캐쥬얼은 위의 3가지 색상계열 외에도 GY(9.2%), R(7.1%)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Bk은 정장에 비해 비교적 낮게 선호되었다. 결론적으로, 정장과 캐쥬얼의 각 색상계열별 평균치의 차이를 고찰한 결과 정장은 캐쥬얼에 비해 YR, B와 무채색 계열 중 Gy, Bk을 더 선호하였고, 캐쥬얼은 정장에 비해 R, Y, GY, G, BG, PB, P, RP를 더 선호하였다. W는 정장과 캐쥬얼의 선호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복종에 따른 계절별 선호색상은 [그림 7], [그림 8]과 같이, 봄에는 정장의 경우 YR~Y~GY~G에 이르는 색상계열과 B를 선호하였고, 무채색은 Gy를 가장 선호하였다. 캐쥬얼의 경우 정장과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여 R~YR~Y~GY~G에 이르는 색상계열과 B를 선호하였고, 무채색은 Gy를 가장 선호하였다. 여름에는 정장의 경우 한색계열인 B(20.3%)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무채색의 경우에도 W(20.3%)가 가장 높고, Gy(19.3%), Bk(6.8%)의 순으로 선호되어 명도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캐쥬얼의 경우에도 한색계열인 B(17.7%)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채색 중 W(17.5%)가 매우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가을에는 정장의 경우 YR~Y~GY에 이르는 난색계열이 선호되었으며, W(1%)에 대한 선호도가



[그림 7] 정장의 계절별 색상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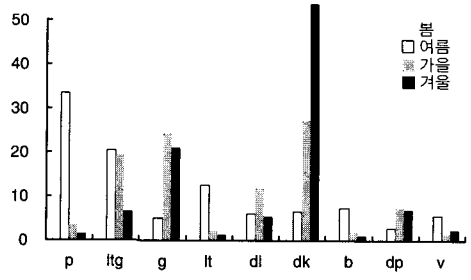
[그림 8] 캐쥬얼의 계절별 색상선호도(%)

낮고 Gy(15.9%)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캐쥬얼의 경우에도 정장과 유사한 선호경향을 보였으며, 무채색에 대하여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겨울에는 정장의 경우 YR(15.1%)과 B(13.4%)에 높은 선호도를 보인 반면, 다른 색상계열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무채색 중 W(2.7%)를 제외한 Bk(30.5%)과 Gy(24.2%)에 대해 매우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캐쥬얼의 경우 R~YR~Y에 이르는 난색계열과 B(13.4%)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무채색 중에서는 W(2.7%)를 제외한 Bk(16.4%), Gy(14.7%)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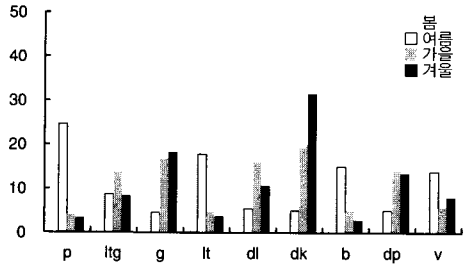
2) 복종에 따른 계절별 의복색조선호

복종에 따른 의복색조선호도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장은 dk(24.2%), p(17.9%), ltg(16.9%), g(14.7%)의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v(3%), b(3.8%)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 명도와 채도가 높은 선명한 색조보다는 채도가 낮은 차분한 색조의 정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쥬얼의 경우 dk(15.1%)와 p(14.2%)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그 밖의 색조에 대해서도 고른 선호도를 나타내었으며, 정장과는 달리 b(9%), v(9.1%)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각 색조의 평균값의 차이를 복종별로 비교한 결과 정장은 캐쥬얼에 비해 채도가 낮은 p, ltg, g와 dk가 더 선호되었으며, 캐쥬얼은 채도가 높은 lt, dl, b, dp, v가 더 선호되었다.

복종에 따른 계절별 선호도를 고찰한 결과 [그림 9], [그림 10]과 같다. 봄과 여름에 유사한 색조선호도를 보였는데, 정장과 캐쥬얼 모두 밝고 연한 p색조를 가장 선호하였다. 정장의 경우 ltg, lt가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색조인 반면, 캐쥬얼의 경우 lt, b가 그 다음으로 선호되어 정장에 비해 더 밝고 선명한 색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에는 어두운 색조인 dk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정장은 g와 ltg와 같이 중명도의 채도가 낮은 어둡고 칙칙한 색조가 선호된 반면, 캐쥬얼은 g와 dl이 선호되어 정장에 비해 좀 더 짙은 색조가 선호되었다. 겨울에는 dk와 g 색조의 정장에 대한 선호도가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캐쥬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dk와 g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



[그림 9] 정장의 계절별 색조선호도(%)



[그림 10] 캐쥬얼의 계절별 색조선호도(%)

타났으며, dl과 dp과 같이 짙고 어두운 색조도 선호되었다.

이상과 같이 계절별 색조선호도를 정장과 캐쥬얼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정장의 경우 봄/여름에는 p, lt, b 색조가 더 선호되었고, 가을/겨울에는 g, dk, dp의 어두운 색조가 더 선호되었다. v는 여름에 가장 선호되었고, dl은 가을에 가장 선호되었다. 캐쥬얼의 경우 봄/여름에는 p, lt, b의 밝은 색조가 더 선호되어 정장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고, 가을/겨울에는 g, dl, dk, dp의 어두운 색조가 더 선호되었다. v는 여름에 가장 선호되어 정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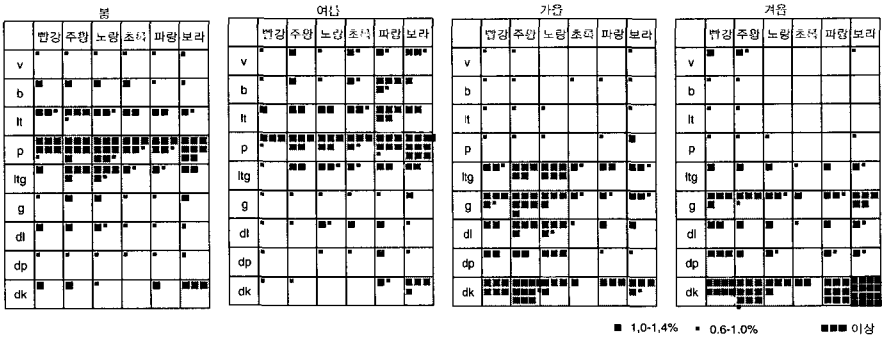
3) 복종에 따른 색상별 색조선호

여성 정장의 색상별 선호색조를 분석한 결과 [그림 11]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봄에는 p, ltg, lt한 주황, p, ltg한 노랑, dk한 보라, p한 모든 색상을 선호하고, 여름에는 p한 모든 색상, lt, b한 파랑을 선호하였다. 즉, 봄/여름에는 밝고 연한 색조의 여성 정장을 선호하고, 색상에 따라 의복을 선호하기보다는 색조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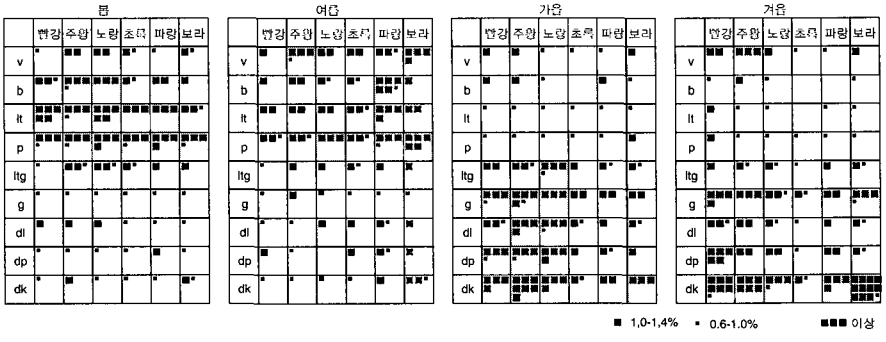
중명도 이하, 중채도 이하의 ltg, g, dl, dp, dk 색조의 주황과 노랑, g한 빨강, 초록을 제외한 모든 색상의 dk 색조를 선호하였다. 겨울에는, g, dk한 주황과 보라, g, dp, dk한 빨강이 선호되었고, 특히 초록을 제외한 모든 색상의 dk 색조에서 집중된 선호경향을 보였다. 즉, 가을/겨울에는 주로 어둡고 탁한 g, dk 색조가 대부분의 색상에서 선호되었으므로, 봄/여름과 색조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가을에는 낙엽을 연상시키는 어두운 색조의 빨강, 주황, 노랑이 선호된 반면, 겨울에는 어둡고 짙은 빨간색이 선호되었다.

여성 캐쥬얼의 색상별 선호색조를 분석한 결과 [그림 12]와 같이, 여성 정장에 비해 선호색상이 다양하게 분포된다. 여성 정장의 경우 봄과 여름에 p 색조의 색상을 집중적으로 선호했던 반면, 여성 캐쥬얼은 특히 봄에 의복의 색조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에는, p, lt, b한 주황과 노랑, 모든 색상의 p, lt 색조를 선호하므로, 밝고 연한 색조에 대한 선호는 정장과 유사하나, 캐쥬얼의 경우 좀 더 선명한 색조를 선호하였다. 여름에는, v한 주황, p한 노랑, b, lt, p한 파랑, v, p한 보라를 선호하므로, p색조에 집중된 선호도를 보였던 정장과 달리, v나 b와 같이 선명한 색조도 높게 선호하였다. 가을에는 명도와 채도가 중간 이하인 ltg, g, dl, dp, dk한 빨강, 주황, 노랑에 선호가 집중된 분포를 보였다. 겨울에는 g, dp, dk한 빨강, v, g, dk한 주황, g, dk한 노랑과 보라, dk한 파랑을 선호하였다. dk한 색조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캐쥬얼은 정장에 비해 dk의 비율이 적고, dk보다 채도가 높은 어둡고 짙은 dp 색조의 비율이 높았다.

남성 정장의 색상별 선호색조의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남성 정장의 경우, 봄에는 p, ltg, g한 주황과 보라, ltg, g한 노랑, 빨강을 제외한 모든 색상의 ltg 색조를 선호하였다. 여름에는 v, p, ltg한 초록, lt, p, ltg한 파랑, p한 주황과 보라, 빨강을 제외한 모든 색상의 ltg 색조를 선호하였다. 즉, 봄/여름에는 빨



[그림 11] 여성 정장의 색상별 색조선호



[그림 12] 여성 캐쥬얼의 색상별 색조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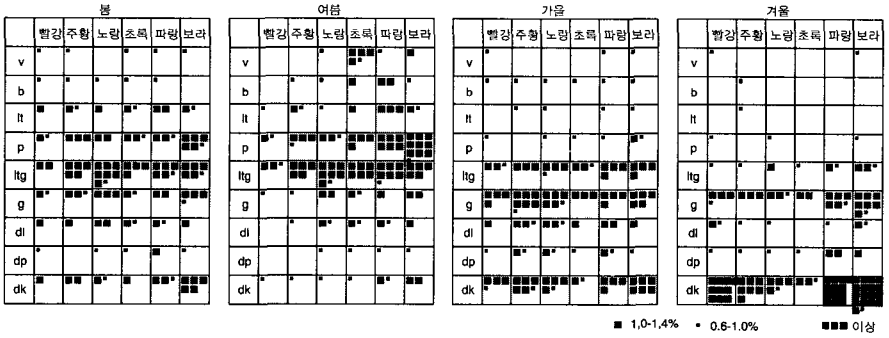
강을 제외한 모든 색상의 ltg 색조를 선호하였고, 여름에는 봄에 비해 좀 더 밝고 선명한 색조를 선호하였다. 가을에는 포괄적인 색상의 ltg, g, dk 색조를 선호하였고, 이 중 g 색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겨울에는 초록을 제외한 모든 색상의 g, dk 색조를 선호하였고, 특히 dk한 색상에 매우 집중된 선호경향을 보여, 가을에 비해 좀 더 어두운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캐쥬얼의 색상별 선호색조의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봄에는 lt, p, ltg한 노랑, lt, p한 초록과 파랑, 모든 색상의 p 색조를 선호하므로, 캐쥬얼의 경우 정장에 비해 좀 더 밝고 선명한 색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에는 lt, p한 노랑, b, lt, p한 파랑, 빨강을 제외한 모든 색상의 p 색조를 선호하였다. 즉, 봄과 여름에 선호되는 남성 캐쥬얼의 색조와 색상은 유사하고, 여름에는 밝고 선명한 파란색 캐쥬얼을 선호하였다. 가을에는 ltg, g, dl, dp, dk한 주황과 노랑에 집중된 분포를 보여, 가을정장의 경우 주로 색조에 의해 의복을 선호하는 반면, 캐쥬얼은 색상과 색조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의복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겨울에는 정장과 캐쥬얼이 유사한 선호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정장의 경우 g, dk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반면, 캐쥬얼은 dl, dp 등의 색조에 고른 선호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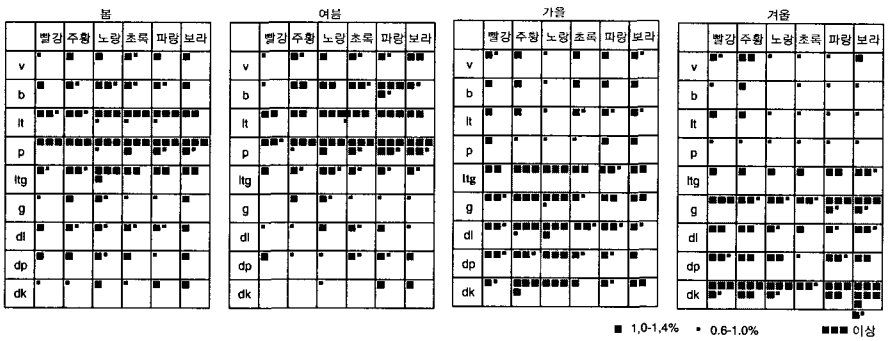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의류 상품기획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색채정보를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 성인남녀의 의복 색채 선호도를, 연령별, 계절별, 복종별(정장, 캐쥬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의복 색채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 따라 남성은 색상 선호도에 큰



[그림 13] 남성 정장의 색상별 색조선호



[그림 14] 남성 캐쥬얼의 색상별 색조선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여성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유채색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무채색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였다. 색조는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밝고 연한 색조와 선명한 색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반면, 짙고 부드러운 색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국내 성인남녀가 가장 선호하는 의복색상은 YR, B, Y로 의복 선호 색채에 큰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 무채색의 경우 여성은 Bk을, 남성은 Gy를 가장 선호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 채도가 낮은 탁한 색조를 선호하고, 채도가 높은 선명한 색조를 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색상의 경우 4계절에 따라 선호에 차이를 보였으나, 색조의 경우에는 봄/여름, 가을/겨울의 2 집단으로 나뉘어 유사한 선호경향을 보였다. 봄에는 Y를 띤 색상이, 여름에는 B와 W, 가을에는 YR, 겨울에는 주로 Gy, Bk이 선호되었다. 또한, 봄/여름에는 중명도 이상, 저채도의 밝고 연한 색조를 선호하였고, 가을/겨울에는 짙고 어두운 색조를 선호하였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봄/여름에 b, v와 같이 밝고 선명한 색조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별 색조 선호는 복종보다는 계절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색상보다는 색조에서 선호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봄과 여름에는 유사한 선호경향을 보였고, 성별과 복종에 관계없이 p 색조의 의복을 선호하였다. 가을은 겨울에 비해 선호하는 색채의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초록을 제외한 모든 색상의 dk 색조를 선호하였고, 가을에는 dk 외에도 ltg, g, dl 색조를 선호하였다.

3. 복종(정장, 캐쥬얼)에 따른 의복 색채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정장은 매우 편중된 색채 선호경향을 나타내었고, 캐쥬얼은 정장에 비해 비교적 선호하는 색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선호되는 색상은 YR, B, Y로 의복 선호 색상에 복종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무채색의 경우, Bk, Gy의 정장을 매우 선호하는 반면, 캐쥬얼의 경우에는 무채색을 덜 선호하였다. 또한, 정장은 채도가 낮은 탁한 색조가 더 선호되었고, 캐쥬얼은 채도가 높은 선명하고 짙은 색상이 더 선호되었다.

계절에 따라 선호하는 의복의 색상은 복종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색조에 있어서는 캐쥬얼의 경우 정장에 비해 더 밝고 선명한 색조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의 경우 색상보다는 주로 색조에서 선호차이가 크게 나타난 반면, 캐쥬얼은 색상과 색조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선호되었다.

현재 국내 패션업계가 서구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색채정보에 많이 의존하여 패션상품을 기획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결과에 의한 국내의 의복 색채 선호경향은 국내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색채기획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영인 · 이현수 · 이현주 · 이윤주, "이미지에 기반한 패션색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실용화 연구 결과 보고서", 산업자원부, 1999.
2) 김영인, 이현주, 이윤주, "국내외 유행예측색의 특성 비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논집, 13, 22-30, 1999.
3)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7.
4) Faber Birren, 김화중 옮김,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1996.
5) Marian L. Davis, 김화중 옮김, 복식의 시각디자인, 경춘사, 1990.
6) 정삼호, "성인 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7) 이혜자, "한국인의 색채기호에 관한 연구(Ⅰ)(Ⅱ)",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11집, 1971.
8) 이기영, "여자중학생의 의복색선호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여자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9) 은영자, "20대 남녀의 의복색상선호에 관한 연구-대구시내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4(3), 1996.
10) 김영인 · 고애란 · 홍희숙, "의복 이미지 선호에 따른 20대 여성 정장시장 세분화 및 색채 선호도", 한국의류학회지, 24(1), 3-14, 2000.